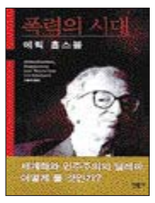
북스

Books

출발점 선 21C 진단 홉스봄 '폭력의 시대'



전쟁의 처참함과 비약적 발전으로 상징되는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정의한 영국의 좌파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이제 막 출발점에 선 21세기를 진단했다.

홉스봄의 신간 '폭력의 시대'는 원제 '세계화, 민주주의 그리고 테러리즘'이 말하듯 '극단의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우리'의 이야기다. 책은 지난 2000~2006년 사이 집필된 글을 모은 것이다.

저자는 역사학자의 임무를 "동시대의 기록에서 가능한 한 뒤로 물러서서 더 넓고 긴 안목으로 이 시대를 조망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냉철하게 오늘의 상황을 분석한다. 저자가 던지는 화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창인 한국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민음사·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

세계 역사 바꾼 위대한 왼손잡이들

'홈런의 제왕'과 '타격의 거인'으로 이름을 떨친 뉴욕 양키스의 베이브 루스. 야구는 왼손잡이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양키스 독주시대를 이끌면서 홈런과 타격 부문 등 거의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왼손이 만든 역사

에드 라이트 지음·송설희 송남주 옮김

누구나 한번쯤은 어린 시절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았다고 어른에게 야단맞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서 단지 왼쪽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천대를 받은 것은 왼손밖에 없을 것이다. 그 천대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한다.

기원전 3000년께에 사용된 인도-유럽어(대부분의 유럽 언어의 원류임)에는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있었으나 '왼쪽'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슬람권에서는 똥을 닦거나 불결한 일을 할 때는 왼손으로 한다. 또 예수는 왼쪽 옆구리를 창에 찔려 죽었으며 하늘로 올라가서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왼쪽'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평론가인 에드 라이트가 '왼손이 만든 역사'를 통해 왼손잡이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설명하고 역사 속 위인들 중 왼손을 썼던 인물 29명을 선정, 이들의 업적과 능력, 성향 등을 정리했다.

저자는 인류가 오랫동안 왼손잡이를 '괴상하고, 특이하고, 낯선' 것으로 치부했지만 정치, 경제, 과학, 음악, 미술 철학 등 각 분야에서 세계사에 족적을 남긴 이들 중에는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책은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민주당 오바마를 비롯해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알렉산더대왕, 시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폴레옹, 잔다르크, 간디, 포드, 빌 게이츠, 베토벤, 뉴턴, 채플린,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 등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들이면서 모두 왼손잡이라고 소개한다.

저자는 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왼손잡이에 대해 관습을 타파해나가는 성향이 강하고 모험심과 직관력 및 시각·공간 인지 능력이 탁월해 운동감각이나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나다며 왼손잡이에 대한 예찬론을 펼친다.

또 찰리 채플린과 마크 트웨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무쌍한 능력을 보여줬다며 왼손잡이 중에는 독학으로 성과를 낸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한다.

왼손잡이들이 자신과 다르게 만들어진 세상을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변화를 거듭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책에 따르면 왼손잡이들은 각자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성격만큼은 원만하지 못했다. 뉴턴과 나폴레옹은 화를 자주 내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통해 친구가 거의 없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저자는 왼손잡이들의 이런 성격마저도 삶에서 마주쳤던 차별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며 이들을 옹호한다.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던 왼손잡이들이 사회 금기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뤄낸 사회적 업적에 대해 일깨워 주지만 각 인물들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내용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말글빛냄·2만4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라진 책들의 도서관

알렉산더 페히만 지음·김라합 옮김

불타고 숨겨지고 사라진 원고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책들이 꽂혀 있는 도서관이 아닌, 조금은 이상한 도서관이 있다. 이름하여 '사라진 책들의 도서관'이다.

'실낱같은 존재의 개연성만 있어도 그 책은 언제든지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보르헤스의 말이 새겨진 이 도서관엔 '우연이나 사고로 사라진 책, 전제군주·교육자·성직자·검열관의 광기와 노여움이나 냉혹한 의도로 폐기된 책, 자연의 힘에 희생된 책, 은밀한 곳에 숨겨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책'이 소장돼 있다.

독일의 알렉산더 페히만이 쓴 '사라진 책들의 도서관'은 동명의 이름을 가진 가상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길잡이가 돼 풍부한 문학사 자료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너무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책과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고대 문서부터 보르헤스, 헤밍웨이, 카프카, 푸슈킨 등 현대 유명작가의 원고가 어떻게 사라지고, 불타버리고(때론 저자가 직접 불태워버리고), 숨겨졌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들려준다.

1920년대 파리를 거쳐 스위스 로잔으로 날아가 집중적으로 글을 쓰려했던 헤밍웨이는 아내 해들리에게 집에 있는 원고를 모두 가지고 로잔으로 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들리는 기차 플랫폼에서 원고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고, 이 소식에 낙담해 '창에 심장을 찔린 황소의 눈'이 된 헤밍웨이는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했지만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결국 훗날엔 원고를 잃어버린 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문체를 세련되게 다듬고 생략기법을 익히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책들의 성전인 '도서관'은 종교와 이념상의 갈등, 전쟁으로 으로 파괴되고 사라진다. 종교전쟁과 삼십년전쟁이 대표적이고, 인류의 보고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소장 도서 역시 아라비아 정복자 칼리프 오마르의 명에 의해 목욕탕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운명에 처한다.

때론 책 속에 언급된 저서들이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이 책들은 내용과 관계 없이 그 책을 뭔가 특별한 것, 생생한 것으로 만드는 '운명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책들이라 호기심을 자극한다.

〈1만원·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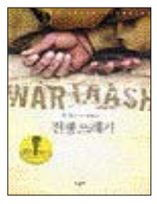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진짜 세계사, 음식이 만든 역사=세계 각지의 요리를 통해 세계 역사를 살폈다. 인류 역사와 함께했던 음식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지도를 통해 음식재료와 음식의 기원 등을 재조명했다.

〈월간쿠켄·1만2천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름-안철수 연구소=보안 소프트웨어 1세대 기업인 안철수연구소의 14년 역사와 경영 노하우를 담은 에세이형 사사(社史). 그동안의 사료와 안철수연구소 구성원 30여 명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엮었다. 〈김영사·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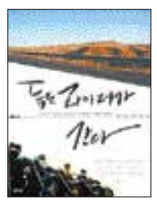
▲전쟁 쓰레기=미국 문단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 작가 하진의 장편 소설로 첫 장편이자 출세작인 '기다림'에 이어 두번 연속 펜 포크너상을 수상하고 퓰리처상 최종 후보작에 오른 작품이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주인공 유안의 시선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국가 제도의 모순을 고발한다. 〈시공사·1만3천원〉

▲그것은 꿈이었을까='새의 선물',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소설가 은희경이 쓴 유일한 연애 소설이다. 의대생 준과 진, 그리고 그들이 꿈결처럼 만난 여자가 등장하며 '미셸', '오브라디 오브라다' 등 비틀즈의 히트곡이 모티프로 사용된다. 지난 1999년 출간된 책의 개정판이다. 〈문학동네·1만원〉

▲직장을 그만두기 전 내 사업을 준비하라-부자 아빠 창업가이드='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록스사의 영업 사원을 거쳐 자신의 사업체를 일구기까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창업법칙을 소개했다. 〈황금가지·1만6천원〉

▲밥 딜런 평전=실천문학사 역사인물찾기 스물 다섯 번째 시리즈로 1960년대 미국 저항 운동의 상징이었던 가수 밥 딜런의 생애를 담았다. 밥 딜런의 전반적인 삶과 함께 그에게 영향을 줬고 또 영향을 받았던 인물도 조명했다.

〈실천문학사·1만5천원〉



▲독도 라이더가 간다='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터사이클을 타고 세계 횡단에 나섰던 대학생들의 여행기. 이들은 250cc 모터사이클로 미 대륙 9개 도시와 유럽 전역, 터키, 이란, 파키스탄, 중국 등 21개국 3만4000km를 233일간 횡단했다. 〈샘터·1만2천원〉

▲옛이야기 찾아 떠나는 강진기행=남도답사 1번지로 알려진 강진의 설화와 민담을 총정리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여행서. 강진출신이자 일간지 기자인 조현주가 강진의 11개 읍면을 둘러보고 그곳의 풍물과 자연을 소개했다. 〈동아일보사·1만3천원〉

▲이제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우포늪 홍보대사이자 아동문학가인 임신행이 우포늪의 사계를 보고 느낀 점과 생각을 정리한 에세이. 지난 1년 동안 경남도민일보의 '우포늪 통신'에 실렸던 글들을 모았다.

〈창조문예사·1만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건물임대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찜닭
점포앞 보도블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타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타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대문의
016-611-3424, 011-625-0510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 공업지역내 공장매매 공장건물3층 910평, 대지800평 신축준공2007년11월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정부지방청사 입구 이번도로,식당,음악홀적합 200평 매280만원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융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법원경매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봉선동	라인광장	24/4층	6천	4천2백
동암동	모아	52평/4층	2억2백	1억6천
두암동	라인동산	28/18	8천3백	5천8백
운암동	중흥2차	32/15	8천3백	5천8백
오치동	무등파크	42/12층	9천8백	6천8백
산수동	동산로얄	32/1	6천7백	4천6백
풍암동	대주파크	46/	1억8천	1억3천
일곡동	동아	37/17	1억5천	1억1백
화정동	한양	31/10	1억1천	7천7백
봉선동	쌍용	64/16	5억2천	3억4천
방림동	모아	35/3	9천	6천3백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장성 삼서	132/277	4억8천	1억3천
북운동	44/200	6억3천	2억7천
쌍암동	242/779	28억	15억
신안동	82/254	8억4천	3억9천
봉선동 상가		3천3백	1천1백
궁동	371/652	95억	27억
봉선동	98/349	8억8천	5억6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나주금천	193/309	5천4백	3천
오치동	56/63	1억4천	6천5백
서동	61/52	1억1천	6천2백
담양 대전	118/375	4천8백	3천4백
운암동	43/53	1억	5천6백
동명동	104/51	2억8천	1억6천
봉선동	48/58	1억2천	8천5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오치동	107/144	3억8천	2억2천
원룸 신가동	57/93	2억6천	1억8천
원룸 화순	92/156	3억8천	2억5천
원룸 일곡동	103/149	3억6천	1억8천
원룸 계림동	66/119	3억8천	2억6천
상가주택 양산동	160/320	7억	4억
상가주택 풍암동	65/164	3억6천	2억4천
상가주택 월계동	30평	2억4천	1억3천
상가주택 월산동	74/214	4억5천	1억3천
상가주택 금남로	83/325	19억	7억1천
상가주택 신창동	58/41	1억1천	7천8백
상가주택 광산동	74/286	11억7천	6억6천
상가주택 중흥동	241/507	15억	4억6천
상가주택 화정동	51/158	2억2천	
근린상가 송정동	290/237	11억8천	6억6천
근린상가 봉선동		8천6백	5천8백
근린상가 금호동		1억2천	1천8백
근린상가 봉선동		3천3백	1천9백
근린상가 월계동		5천	2천8백
오피스텔 신안동	제일 9평	3천5백	2천4백
오피스텔 월산동	동강 27평	1억2천	5천3백
오피스텔 금호월드	10평	2천8백	1천8백
오피스텔 치평동	렌트피아	5천5백	3천8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장덕동	517/406	9억3천	4억2천
옥동	2000/1434	35억	22억
담양월산	1533/243	3억5천	2억5천
나주세지	3887/3518	102억	23억
장성삼계	1148	189억	106억

법원경매 전문회사
-▶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경매재테크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주)옥선코리아 대표 1 : 1무료상담
▶투자수익부동산 010-3666-8446

소재지	지목	면적/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해남군 산이면	전	2508	8300만	5800만
무안군 삼향면	전	1979	5300만	3700만
함평군 월야면	전	2935	7900만	5500만
해남군 산이면	전	1143	3400만	2300만
용봉동	근린시설	150/177	8억8800만	6억1900만
삼계면 사창리	근린시설	275/169	3억2000만	1억4300만
담양군 봉산면	공장	1962/326	11억3400만	6억3500만
광산구 장덕동	공장	517/406	9억3000만	4억1600만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691	2억2200만	1억1300만
영암시 태간면	양어장	1696	5000만	3500만

▶임대수익부동산 010-3666-8446

소재지	지목	면적/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소촌동 라인1차	아파트	24	5600만	3920만
중흥동	숙박시설	65/181	3억4000만	1억9100만
봉선동	근린시설	98/350	8억8100만	5억6400만
유촌동	근린주택	61/133	3억3900만	2억1600만
도산동(분식점)	근린상가	12	5800만	4000만
일곡동	원룸	103/148	3억5200만	1억9700만
일곡동	원룸	56/100	2억7900만	1억5600만
계림동	원룸	66/120	3억8100만	2억6700만
동명동	원룸부지	104	2억8400만	1억5900만
송정동	원룸부지	60/40	2억2300만	1억2500만
▶실수요자부동산 010-3666-8446

소재지	지목	면적/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옥동	공장	2000/1434	34억4800만	22억700만
광산구 장덕동	공장	1500/1454	31억2000만	21억8400만
도산동 무미	아파트	24	5300만	3710만
마륵동 희망가	아파트	32	1억7200만	1억1900만
월계동 금호	아파트	34	1억1000만	7700만
화정동 태영	아파트	23	5200만	4160만
송정동 모아	아파트	24	6700만	4690만
임월동	주택	144/34	1억476만	7330만
고사면 원강리	주택	103/38	8100만	5700만
대전면 대치리	주택	78/37	4800만	3300만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아울러가리 5억5천 미술학원포함 건물 대170P 건160P 지상4층 지하1층 급매
◎쌍방울 경영 발원의 원하는 대65P 건150P 지상4층 즉시 입주가능
◎7억8천 빌딩 급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서동동 대270P 건267P 보1억3천 월450만원
◎13억9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3억3천 월900만
◎12억원포 8천 빌딩부지 30×8m코너 보증금 1억 월550만원 포함
◎13억고시원 대110P 건300P 룸90개 월세1,500만원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P, 건510P 보증금 2억 월세850만원
◎17억5천 1층 점포 12천 원룸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2억 아파트 투룸매매 대250P 건800P 1층 대형마트 투룸 51개 주택밀도 지하1층 지상7층 보2억3천만원 월1,600만원 포함
◎28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890P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대200P 건1,100P 보12억 월세2,0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월세3000만원 융자20억 포함
◎63억 빌딩 대320P 건1800P 보21억 월세1000만원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 현재 공장 운영중
주유소 전문중개
◎8억 주유소 급매 대300P 35m도로변
◎13억5천 시내 주유소 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13억 병원 의원용 건물 급매 대115P 건420P지하 1층 지상5층
땅
◎각화동 정비 공장부지 600P 상업지역 35m 도로접 P당 270만원
·6억 시찰 급매·
곡성 대2000P 건200P 광주에서 30분
◎담양 급성 1,600P P당 10만원 주택포함 남향
◎순창 금과 2,780P P당 5만원 계획관리지역
◎순창 금과 4,700P P당 4만원 계획관리지역
◎침평 4,200P 9억 제1종 주거지역
◎골프연습장부지 8,000P 자연녹지 복구 P당 50만원
◎정비공장 창고부지 자연녹지 소형평 250P P당 70만원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P 남향 정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신성흥플라스에서 10분거리 P당 5만원
◎동림동 생산녹지 800P 대지8억
◎담양 임야 25만P P당 3,000원
◎담양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접 임야 P당 9만원
◎광산구 상가용 관리지역 2000P P당 10만원
◎대덕면 7,000P 3억7천 고속도로주변
◎골프연습장부지 3,000P P당 120만원 30m 도로접
◎임지부지 2,700P P당 7만원
◎옥과소재지 2억 전원주택·과수원 1,500P 2억
◎사창동 주거지역 아파트·빌라부지 1,700P 평당120만원
·해남땅끝 낭동항과 식품회사 급매·
공장부지 4,000P 건물1,400P 대지가 48억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PT1800세대 마트점 목욕탕
대120P 건270P 현재 주인직접중 매12억